

다산포럼



임철순
데일리임팩트 주필
자유칼럼그룹 공동대표

나는 감나무를 좋아한다. 어려서 살던 고향 집 마당 끝에는 잎이 낙낙하고 풍성한 감나무가 한 그루 있었고, 그 나무의 그늘은 나만의 호젓한 공간이었다. 약을 무찌르는 정의의 사도가 됐다가, '삼국지'의 조자룡이 됐다, 비운의 사랑에 절망하는 주인공이 됐다가 알 수 없는 먼 곳으로 떠나가는 내 공상을 감나무는 다 지켜보며 응원을 주었다. 도글도글 떨어진 감뭉치는 어디론가 영원으로 통하는 꽃처럼 심비해 보이기까지 했다.

철든 뒤에 안 일이지만 감나무 잎은 넓고 커서 글씨를 쓰기에 좋은 재료다. 종이와 얇은 감잎에 글씨를 쓰며 공부한 옛사람들의 이야기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조선 후기의 문인 홍한주(洪翰周·1798~1868)의 시 '유거감회(幽居感懷)'에도 "단풍 숲은 비에 씻겨 취한 듯 붉고 / 감잎은 가을에 살져 글 쓴 말만큼 크구나"(楓林雨洗明如醉 柿葉秋肥大可書)라는 말이 나온다.

감잎은 해독작용도 한다. 수주 변영로의 유쾌한 회고록 '명정(醒靜)' 40년'에는 술에 대취한 수주가 웃을 벗고 주정을 부릴 때의 이야기가 나온다. 추대를 보다

사람도 후숙(後熟)이 된다면

못한 어머니가 앞뜰의 감나무를 베게 한 뒤 시체처럼 쓰러진 아들을 감잎으로 수북이 덮어 살려낸 이야기다. 감나무는 이렇게 고마운 존재다.

감나무가 좋은 것은 감이 맛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가을에 먹는 홍시, 한겨울에 먹는 귤같은 과일이나 좋은가. 할아버지가 벽장 속에 넣어둔 홍시를 꺼내 먹는 건 즐겁고 신나는 일이었다. 가을이 되면 파란 하늘 아래 붉게 익은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모습도 보기 좋고, 높은 나무 꼭대기에 단 하나 까치밥으로 남아 있는 풍경도 아름답다.

내 외갓집에는 단감이 있었다. 나무에서 딴 감을 바로 먹는 게 어린 나는 놀랍고 신기했다. 왜 우리 동네에는 단감이 없을까. 어른들은 왜 이런 나무를 심으려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내 고향에서 익지 않은 땀감을 먹는 방법은 구정물에 며칠 담가 우리는 수북에 없었다.

올해에도 나는 예년처럼 감을 잘 먹고 있다. 홍시도 사다가 매일 먹고 있지만, 달포 전쯤 이웃집에서 나눠준 감이 되기까지의 생리적 변화를 뜻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이는 후숙의 의미는 '수확한 과실이 먹기에 가장 알맞은 상태가 되기까지의 생리적 변화'다. 말하자면 종자가 시간과 더불어 성숙해지는 과정이다.

그렇게 감을 먹으면서 후숙(後熟)이라는 말을 생각했다. 후숙은 종자가 성숙한 뒤 휴면을 거쳐 발아할 수 있게 되기까지의 생리적 변화를 뜻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이는 후숙의 의미는 '수확한 과실이 먹기에 가장 알맞은 상태가 되기까지의 생리적 변화'다. 말하자면 종자가 시간과 더불어 성숙해지는 과정이다.

이 감은 줄기에서 떨어져 나와 열매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변화가 계속 진행되는 것일까. 감은 여전히 죽지 않은 것이다. 양분의 공급을 받지 못하는데도 단맛과 감칠맛이 높아지니 자연은 역시 신묘한 작용을 한다.

사람도 이렇게 후숙될 수 있을까. 벼슬에서 떨어지거나 명예와 부를 잃고 영락해 실의에 빠지더라도 생명력을 유지하며 제 할 일을 다하고 본연의 모습을 지켜갈 수 있을까. 식물이 후숙하면 먹기 좋은 상태가 되는데, 사람이 후숙하면 어떻게 되는가. 세상을 올바르게 살면서 나라와 사회를 위해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인간이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사람의 참모습을 아는 방법 중 하나로 '여씨춘추'는 "빈궁해졌을 때 그가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라."(賤則觀其所不爲)고 일러준다. '맹자' 진심장(盡心章) 상에는 "선비는 궁해지더라도 의를 잃지 않고 영달하더라도 도를 떠나지 않는다."(士窮不失義 達不離道)는 말이 나온다. 그리고 "궁해도 의를 잃지 않기 때문에 선비가 자신의 지조를 지키고, 영달해도 도를 떠나지 않으므로 백성들이 실망하지 않는 것이다."(窮不失義故士得己焉 達不離道故民不失望焉)라는 말이 이어진다.

지금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가. 잘되건 못되건 한결같이서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을 성숙한 인물이 있는가. 못나고 비루한 자들의 추한 행태만 보고 듣다 보니 사람도 후숙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청춘 특특



정하늘
조선대 신문방송학과 2년

문해력이란 문자 해독 능력을 뜻하며 소통, 문자 이해와 해석, 창작 등 넓은 범위를 의미한다. 의미 적용과 의미 연결로 나뉘볼 수 있는데, 유네스코에 따르면 "저소득 국가의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기본적인 문해력을 갖추 수 있도록 한다면 약 1억 7100만 명이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고 예측했을 정도로 문해력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은 상당히 크다.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문해력'에 대해 다시 정의할 필요성이 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됨에 따라 유튜브 등 각종 미디어 매체를 일상에서 소비하는 시간이 대폭 증가하면서 문해력, 쓰기, 읽기 등 기본적인 인간의 언어 및 수리 능력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공중파 방송에서 대학 교수님이 웃지 못할 내용을 소개했다. 대학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문제를 출제하면 문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컨

세상을 읽는 힘, 문해력

대 '특정 문제를 논하시오'라는 지문을 제시하면 엉뚱하게도 개념만 나열하는 답안이 속출한다고 사례를 들려줬다. '특정 현안에 대해 비판하시오'라는 지문을 제시해도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적인 시각 대신, 단순한 사실만을 나열한 답안을 제출한다고 안타까워했다. 심지어 '금일'을 '금요일'로 오해해 과제를 제때 못 낸 대학생과 교수의 대화가 논란이 된 적도 있다. 모두 문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다.

또한, 짧은 글들과 영상에 익숙해지며 점차 어휘력이 떨어지고 긴 글 읽는 것을 힘들어하는 현상이 현저히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SNS상에서 제목을 보고 내용은 건너뛴 채 댓글만 읽는 경우가 있다. 진짜 뉴스나 가짜 뉴스를 따지지 않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증 편향'에 빠지기도 한다.

글을 읽는 습관을 통해 문해력은 향상되며, 동시에 지식과 시각적 상상력도 더욱 풍부해진다. 포털 기사를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종이 신문이 존재하는 이유 또한 몰랐던 부분 혹은 알고 싶은 분야, SNS에서 벌어지는 일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종이 는 여백에 메모를 남기거나, 밑줄 긋기를 통해 읽기 과정을 역동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

특히 메모를 통한 주석 달기는 정적인 독서 과정을 적극적인 관계 맺기로 전환하는 과정이므로 추상적인

개념을 다루고 있거나 글의 길이가 긴 책을 읽을 때 적용한다면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독자가 손을 움직여 직접 종이 페이지를 넘기고 이제껏 얼마만큼의 분량을 읽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종이 신문은 같은 내용을 더 오래 기억하게 만들고, 서사 속에서 어떤 시공간적 위치에 도달해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기기를 통한 읽기를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이유는, 스크린을 통한 읽기는 그 깊이가 쉽게 얕아지기 때문이다. 읽기의 속도가 무의식적으로 빨라지고 훑어 읽거나 건너뛰어 읽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다. 이 밖에도 주의가 분산되기 쉬워 가볍고 얕은 읽기에 빠져들기 쉽다는 것이 디지털 매체를 통한 읽기의 함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매체 특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의 속성에 알맞은 읽기 전략을 취해야 한다. 새로운 매체를 더 많이, 다양하게 접하고 집중해서 읽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디지털 기기의 도입이 피할 수 없는 변화라면, 새로운 형태의 교육을 통해 매체별 특성에 따른 읽기 습관을 형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글을 읽는 것은 사회적인 활동이다. 대화하고 공부하기 위함이며, 문해력을 기르는 것은 사회적 독서를 경험하는 것이다.

기고

줄어드는 고등학교 헌혈, 참여 시스템을 만들자

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30대 이상의 중장년층의 헌혈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 시기에 학교를 비롯한 단체에서 헌혈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헌혈 재난 문자를 보내는 방법 등의 영향으로 중장년층의 참여가 늘었다. 하지만 고등학생 헌혈자의 감소 폭을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또 하나의 이유는 학생부에 코로나 시기 비대면의 영향으로 봉사활동 인정 시간이 코로나 이전보다 절반이나 감소했다는 것이다. 봉사 시간은 학생 수가 감소해도 학생들이 독려해 헌혈 참여율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2024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학교 이외 헌혈의 집에서의 개인 헌혈 봉사 시간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한다. 갈수록 고등학생의 헌혈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이유는 학교에서 헌혈 일정 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만난 어느 교장 선생님은 헌혈 참여를 요청하자 "이제 학교에는 극단적 이기주의만 팽배하다"며 헌혈 참여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헌혈 시간을 수업에 지장을 준다고 생각한다.

갈수록 학교 현장이 대학 입시를 위한 학원처럼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필자만은 아닐 것이다. 헌혈 이외에도 학생들의 이타성, 사회성과 협동심 등을 길러 줄 수 있는 청소년단체 활동을 학교 내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듯 학교 현장에서 건전한 청소년 활동과 봉사활동의 축소는 우리 아이들의 이기주의와 폭력성을 더 키우고 있지 않나 싶다.

우리 교육 현실을 보며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는 "우리나라에 교육은 없었다"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인간 존엄을 가르친 독일 교육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간 존엄성을 높이는 데는 여러 가지 교육 방안이 있겠지만 필자는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이타적인 나눔과 봉사를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눔과 봉사 중에 단연코 헌혈은 필수다.

특히 고등학생 헌혈은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생애 첫 헌혈 경험은 대학, 군대, 직장에서의 헌혈로 이어지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이때 많은 학생이 헌혈에 참여할수록 우리나라 헌혈 인구는 전체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고등학교 헌혈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학교와 지역 교육청이 학교에서의 헌혈 참여 횟수를 늘려 주면 된다. 지금도 일부 학교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연간 2회 이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헌혈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이다.

다음은 교육부가 학생 봉사활동 시간을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돌리고 다시 개인 헌혈 봉사 시간을 대학 입시에 반영하면 좋겠다. 그리고 초·중·고 교육 계획에 헌혈을 비롯한 장기기증 등 생명나눔 교육을 정규과목에 편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헌혈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생명의 소중함과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무를 배우게 된다면 줄어드는 학교 헌혈을 막고 작금의 폭력적인 교육 현실을 타개하는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싶다.

社說

정국 주도권 잃은 민주당...이대로는 안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승리 이후 오히려 정국 주도권을 잃고 있다. 보궐선거 이후 한달이 지났지만 민주당은 승리에 취한 듯 안이하게 대처하는데 반해 국민의힘은 인요한 혁신위원회를 출범한 후 연일 총선용 이슈를 선점하고 쉐인 경쟁을 주도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정책 이슈 몰이에 민주당이 정국 주도권을 잃고 끌려 다니면서 존재감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인요한 혁신위가 밀어부치는 총선 공천 과정에서의 인적 쉐인 드러이브가 유권자들에게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 인요한 혁신위가 지도부와 중진, 친윤(친 윤석열)에 대한 불출마 및 협치 출마 요구를 비롯해 45세 미만 청년 비례대표 50% 할당, 국회의원 수 10% 감축과 불체 포퓰리즘 포기 등 인적 쉐인을 쏟아내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렇다할 쉐인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책에 있어서도 국민의힘이 매가시티를 선점해 전국적으로 이슈화

하고 공매도 금지 등으로 유권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뻔히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라는 것을 알지만 이슈를 선점해 정국 주도권을 잡은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반면 민주당이 내놓은 '경제성장률 3% 달성론'과 황제세 등은 주목을 끌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민주당이 내놓은 검사 탄핵 추진은 '방탄 탄핵'이라는 비판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재명 대표의 쌍방을 그들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탄핵 추진이 그것인데, 어떤 논리를 대더라도 탄핵 소추를 하면 직무가 정지되는 점을 악용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민주당은 그렇지 않아도 계파 갈등이라는 뇌관을 안고 있다. 혁신과 정책에서 정국 주도권을 내준다면 내년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지금부터라도 계파 갈등을 잠재우고 여당 보다 더 치열한 혁신을 통해 민심을 얻어야 한다.

사건 브로커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 수사를

검찰이 김·경을 대상으로 로비를 벌여 수사·인사에 관여한 사건 브로커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어 주목된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감력수사부는 엇그제 광주경찰청 수사·정보과, 광주북부경찰서 형사과, 광주광산경찰서 첨단지구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 경찰관은 모두 4명으로 사건 브로커 A(구속)씨와 연관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세 명은 지난 2020년께 광산구 수사부서 책임자와 담당자 등으로 A씨의 부탁을 받고 수사중인 코인 투자 사기 용의자 B(구속)씨 사건을 무마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핵심 인물인 A씨는 20여 년 전 수사기관 고위 무관, 지역 유력 인사 등과 친분을 내세우며 김·경 수사와 인사 비리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이 지난해 9월 B씨에 대한 '수사 무마' 첩보를 입수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A씨와 공범 한 명은 지난 2020~2021년 B씨 측으로부터

수사 로비 등의 명목으로 외제차를 포함해 18억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28억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현재까지 경찰관 네 명이 수사 선상에 올라 있고 형직 광주지검 산하 지청 수사관,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전남경찰청 퇴직 경감 등 세 명이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와 경찰 고위직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설로 떠돌던 김은 커넥션이 드러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수사해야 할 검찰과 경찰이 사법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은 광주·전남지역 사법기관의 환부를 도려낸다는 각오로 철저하게 수사해 단죄하고 도착 사법 비리를 근절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떨과 물속에 오래 담겨 있어 부르튼 맨발/ 내가 조문하듯 그 맨발을 건드리자 개조개는/ 최초의 공리인 듯 가장 오래하는 공리인 듯/ 천천히 발을 거두어갔다." (문태준 '맨발' 중)

시인은 어물전 개조개(대합)의 발에서 열반하던 부처의 맨발을 떠올린다. 맨발은 상징적이다. 맨발은 가시를 벗은 순수성, 가난과 약함, 자연과의 연결을 보여준다. 부처와 마하트마 간디를 비롯해 '맨발의 마라토너'로 불리는 에디오피아 아베베 비킬라, 영화 '맨발의 청춘'(1964년작) 등에서 맨발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맨발걷기 열풍

인간은 직립(直立)함으로써 자유로워진 두 손을 활용해 영장류와 다른 진화의 길을 걷게 됐다고 한다. 하지만 두 발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 인간의 발은 의외로 복잡하다. 한쪽 발만 해도 발가락 뼈 등 26개의 뼈를 비롯해 수많은 근육과 힘줄, 인대로 구성돼 있다. 이러한 두 발이 있어 인간은 걷거나 뛰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총알 탄 사나이' 우사인 볼트는 100m를 9.58초에 주파해 세계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시속으로 환산하

면 무려 37.4km에 달한다. 인간은 수렵생활을 하던 시절부터 원시적인 신발을 신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맨발 걷기는 인류 문명 이전의 원초적인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셈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맨발걷기 열풍이 거세다. 신발을 벗고 맨발바닥과 흙을 직접적으로 접촉하기 때문에 '어상'(Earthing)이라고도 한다. TV건강 프로그램 방영과 '총타리'하는 입소문에 힘입어 더욱 가속도가 붙고 있는 듯하다. 어디를 가든 등산화를 한 손에 들고 맨발로 걷는 이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광주·전남 지자체들도 앞장서 맨발길을 조성하고 있다. 광주에는 서구 풍암동 풍암호수공원 인근 야산과 북구 중외공원 편백숲길, 전남에는 영광 무사산 행복숲과 화순 너릿재 옛길, 영암 군서면 구림마을 등지에 맨발길이 마련돼 있다.

맨발걷기 열풍이 개인의 심신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지구별' 환경을 생각하고, 과학문명의 한복판에서 상실해버린 '맨발의 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송기동 예방부장 song@



김동수
대학직접이사
광주전남혈액원장

지난 10월부터 눈에 띄게 혈액 보유량이 급감하고 있다. 두 달 전과 비교하면 40%가량 줄어든 것이다. 연휴와 학생들의 시험 기간, 대학 및 지역 축제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고등학생 헌혈자의 감소가 가장 크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코로나 이전에 고등학생 헌혈자가 3만 명이었다. 코로나 시기에 학교에서 헌혈이 제한되어 작년엔 1만 5000명까지 감소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비대면 상황이 풀려 학교 헌혈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작년과 비슷한 추세로 늘어나지 않고 있다. 감소한 1만 5000명은 학교 방학 기간인 동·하절기 3개월을 제외하면 매월 1666명의 헌혈자가 줄어든 상황이 되는 것이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학교 헌혈이 정상화된 지 일 년이 지나고 있지만 고등학교 헌혈자 수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가장 먼저 저출산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낮아지는 출산율은 이를 가속화시킬 것이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지부 220-0652, 경제부 220-0663, 사회부 220-0664, 전담부 220-0680, 경영지원국 220-0515, 기획관리국 227-9600, 디자인실 220-0536,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